

## 사례연구를 통한 패션산업에서의 ‘리디자인’에 관한 고찰

조 은 주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 Consideration on ‘Redesign’ in Fashion Industry Through Case Studies

Eun-Joo Cho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2011. 5. 17. 접수; 2011. 7. 6. 수정; 2011. 7. 8. 채택)

#### Abstract

Modern society has reached the level where its environmental pollution is in a critical stage, and socio-political focus has been moved onto the minimiza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fashion industry, ethi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the global protection has become the value to ai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redesigned fashion, which is a type of designing method designed to reduce global waste, and conduct a case studies on it to analyze its patterns. Environmental-friendly redesigned fashion concept is about remaking a fashion with totally different function, using disposed and wornout items from everyday lives. It is a fashion design minimizing raw materials and reducing industrial wastes. The types of redesigned fashion may be divided into three patterns: first, there is a method to recreate collar, sleeves, cuffs, pocket and other usable pieces of old clothing to make a new one. Second method is about taking out usable parts of textile from various old clothing and make a new one with patchwork method. Third is about making a purse or fashion accessories using paper, vinyl, aluminum can or worn out leather. Fourth is about making a new artistic fashion by applying tearing, punching, fringing, mashing, and layering techniques. This study aims to help in spreading out and applying systematic practice of redesigned fashion for companies, and elaborate th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customers, and vitalize the fashion studies for redesigned fashion in academic sense.

**Key Words:** Pollution(오염), Wastes(폐기물), Environmental-friendly redesigned fashion(친환경적 리디자인 패션)

### I. 서론

현대사회는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정치·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환경오염 관련 규제 법규의 강화와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전개 및 관련 전시회

개최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친환경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사용-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햄버거 가격만큼 싼 ‘패스트 패션’

이 유행이다. 소비자의 입장으로는 싼 옷을 여러 벌 구입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싫증나면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이 구호물로 보내지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우리의 주변 환경에 매립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짧은 수명 주기의 패션 제품들이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고 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패션산업에서도 친환경, 에코, 그린, 로하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구환경 유지를 위한 윤리적 생산과 소비라는 의미에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치 자각을 통해 현대 패션 브랜드들도 친환경 경향과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자원절약과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적인 시도를 통하여 자신과 이웃의 안녕, 나아가 후세에 물려줄 소비기반까지 생각하며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리디자인 패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다.

2000년 이후의 논문을 살펴보면 친환경 디자인, 그린디자인, 에코 패션디자인 등을 주제로 하여 범주에 따른 유형 분석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김은진과 장남경(2009)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원단을 이용한 디자인 제시 외에는 지구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친환경 패션 디자인 방법인 폐의류 리디자인에 집중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리디자인 패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패션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리디자인 패션의 사례를 살펴본 후 리디자인 패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리디자인 패션의 제품 생산 방법과 형태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디자인으로서의 리디자인 패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리디자인 패션의 사례 별 디자인 유형의 분석을 통해 기업과 사회전반에 구체적이고 시스템을 갖춘 리디자인 패션의 실행 방법의 확산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환경보존에 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지

향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술적으로는 리디자인 패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연구와 관련 사진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이며, 이를 위한 자료는 국내외 문헌 및 선행 연구논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리디자인 패션의 사례별 디자인 유형 분석에 사용한 사진자료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각종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들로 리디자인 전문 패션업체인 국내의 '리블랭크', '에코파티메아리'와 미국의 '에코이스트', '크라이스트', '러셀 세이지', 스위스의 '프라이탁'사의 제품과 디자이너 '마르탱 마르지엘라'와 '나이키'사에서 제작한 친환경 리디자인 제품의 사진들을 선정하여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친환경 패션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친환경 패션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장남경 외(2007)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유형을 그린디자인,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자연적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유기농 소재, 신소재, 감소, 다기능, 재생산, 주문생산, 재활용, 재사용으로 분류하여 섬유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패션 단계별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천하봉(2009)은 친환경디자인을 그린디자인, 에코디자인, 지속가능 디자인으로 분류하고 이 3가지 단계를 기본으로 한 통합적 친환경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윤윤요(2010)는 에코 디자인을 내추럴 디자인(자연주의), 그린 디자인(reduce, reuse, recycle), 지속가능한 디자인(timeless, renewable, multi-functional)으로 분류하였다. 남후남(2010)은 친환경 디자인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서스테이너블 패션을 제안하고 이를 친환경 소재 활용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재활용 디자인, 원단 폐기물 최소화 디자인, 슬로패션, 다기능 디자인), 친환경 캠페인 디자인,

공정무역에 의한 디자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박수민과 유영선(2008)은 그린디자인으로서의 로하스 패션디자인의 표현특성을 로하스 내추럴 룩, 로하스 빈티지 룩, 로하스 리디자인 룩, 로하스 멀티 룩으로 분석하였고, 김새봄과 이경희(2010)는 에코 패션디자인을 유형별로 인간, 자연, 사회생태 디자인으로 나누어 형태/디테일, 색채, 소재/무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류근중, 허은옥(2006)은 친환경 패션디자인 특성으로 ① 생태적 사고에 기인, 자연계의 다양성과 복잡성 존중, 자연회귀와 인간 환경, 패션의 상호조화 실현하고자 함. ② 친환경 섬유 개발 및 오염 최소화 ③ 시간의 순환성과 자연성 차용 및 변형을 통해 자연색과 시간성을 가진 색감 강조. 형태와 기능이 고정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변화 ④ 이질적 소재의 재활용, 자연적 소재 사용 ⑤ 제품의 수명이 긴 명품지향, 복고주의, 수공예 기법을 통한 고급취향 제안을 들고 있다. 윤을요(2010)는 패션 브랜드의 그린 마케팅 실천 유형을 ① 슬로우 패션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② 천연 소재의 내추럴 디자인 ③ 패키지의 친환경 디자인 ④ 제조 공정의 그린 디자인 ⑤ 폐기물의 친환경 디자인 ⑥ 패션 브랜

드의 친환경 기업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에코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 환경과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류와 환경과 미래세대에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적 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제반 디자인 활동이나 디자인의 경향'(복식사전, 2004)이다. 친환경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자주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주와 이지연(2006)은 20세기 에코 디자인의 흐름을 크게 세 부분(1950-70년, 1980년, 1990년)으로 나누어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1972년 '로마클럽'의 제 1차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지속가능한' 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다. 80년대 들어 디자인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 그린피스, 그린 스카우트, 그린파티 등 녹색운동과 녹색 소비자들이 등장, 이른바 그린 디자인 대두하였다. 2000년 리우환경회의에서 발표된 밀레니엄 선언 등 국제적 이슈와 더불어 환경을 보호하려는 에콜로지 정신이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1992년 미국디자인총회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원리'가 공포되었다. 환경 친화 디자인, 그린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이라는 용어로 내용 및 방

<표 1> 친환경 패션의 주요 개념들

용어	주요개념
자연주의 패션	자연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개념으로 자연에서 응용한 동, 식물의 문양이나 천연의 색 자연스럽고 편안한 실루엣을 의미하는 패션
에콜로지 패션	천연소재를 주로 사용한 자연 지향적 패션의 총칭이며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은 실루엣과 문양, 색채 등에서 자연의 이미지를 표현한 패션
오가닉 패션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쓰지 않는 유기재배의 뜻으로 유기농 소재를 활용하는 한정된 개념에서부터 넓게는 생산가공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하여 건강과 지구환경 보전에의 배려가 내포
웰빙 패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으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패션
지속가능한 패션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생태학적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개념에 의한 환경과 인간을 위한 디자인으로 디자인 기획, 생산, 유통, 소비 및 사용 후 재활, 재생되는 과정이 순환되는 시스템으로 진행
슬로우 패션	'느림, 정성, 환경, 인간, 건강'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상표 뒤에 감추어진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천연소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한 옷,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사회적이 책임을 다한 패션
로하스 패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더 나아가서 후손들까지 고려한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트렌드를 중요시하는 소비자의 고 감성 취향에 부합되면서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서의 패션

(출처: 김미금, 박희정, 간호섭, 2010.)

향이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적(environmentally freindly, eco-friendly)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패션디자인의 환경 친화적 경향은 김수현과 이재정(2006)에 의하면 크게 다음 4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① 이미지단계(자연주의) ② 메시지 단계(자연주의 슬로건, 자연 소재 사용 강조) ③ 적용단계 (빈티지, 그린지 패션 등) ④ 의미확산의 단계 (웰빙 지향,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보완)이다. 김미금, 박희정, 간호섭(2010)은 친환경 패션에서 시대별로 분화, 발전되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주요 용어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1).

손세란과 김정희(2004)에 따르면 에콜로지 패션은 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 라는 내추럴리즘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져 혼용되기도 하며 디자인 스타일에 있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태환경주의는 자연을 존중하고 이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내추럴리즘의 기본 정신에 환경친화적, 재활용, 재생의 의미부터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내추럴리즘과 구별된다. 유홍식(2005)은 환경친화적 패션의 개념을 자연을 존중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패션으로 정의내리며 자연주의 경향, 원시주의 경향, 재활용주의 경향으로 분류하였다.

## 2. 친환경적 리디자인의 의미

리디자인 패션은 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경제적 이득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의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적 패션 디자인이다(장경희, 1993). 패션산업현장에서도 디자인과정에서의 재료 선택, 대량생산과정, 제품의 포장, 완성된 제품의 운송 등 전 과정에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Papanek, 1995)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패션디자이너 또한 재료의 선정, 제품의 사용과 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피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인식하여야 하며(Burall, 1991),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리디자인 패션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실제로도 최근 패션 산업현장에서 리디자인 패션이 가지는 사회적인 중요성을 절감하고 리디자인 패션의 생산과 소비 두 측면에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패션기업과 패션디자이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리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디자인을 고치다’ ‘재설계하다’로 장기간 이미 사용되었던 디자인을 경쟁상품의 출현이나 시대감각, 소비자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바꾸거나 개량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수민, 유영선, 2008). 그러나 환경보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패션으로서의 리디자인의 의미는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폐기물 감소를 실천하여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리디자인의 사전적 의미와는 구별된다. 신혜영(2011)은 리디자인의 분류로서 리사이클 디자인(이미 사용하였던 재료 분해 또는 변형으로 새로운 제품 제작), 리유즈 디자인(한번 사용한 제품을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리듀스 디자인(디자인을 통해 생태적 효율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반영), 리플레이스 디자인(기존에 사용하던 원료나 공정에 필요한 물질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대체 등), 리바이탈리제이션 디자인(도시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복원의 디자인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탈리아 파엔자(Faenza)의 Design 2.0이라는 기업이 진행한 프로젝트 명칭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리사이클과 디자인을 합친 신조어인 ‘리자인’이란 용어도 등장하였다.

## III. 친환경적 리디자인 패션에 관한 고찰

### 1. 친환경적 리디자인 패션의 개념과 특성

최근 패션 산업현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리디자인 전문 브랜드와 리디자인 패션에 대한 대기업들의 관심,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디자이너들의 적극 참여로 리디자인 패션은 새로운 미학과



<그림 1> 패션소비자들을 위한 폐품활용 리디자인 실천교육 (출처: www.google.co.kr)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태도의 재해석으로 환경의식과 부합하여 21세기 패션의 새로운 스타일로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버려진 의류 쓰레기와 일상의 폐품을 활용하여 스타일을 재창조 하면서 미래의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과, 패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천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1).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리디자인 패션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디자인 패션은 ‘인간과 환경을 지킨다’는 새로운 가치기준에 따라 자원절약과 폐기물 감소를 실천하는 친환경적 개념의 패션디자인을 말한다.

둘째, 리디자인 패션의 소재로는 폐의류, 폐기된 텍스타일, 현수막, 폐가죽과 종이, 비닐, 알루미늄, 캔, 금속 등 일상의 폐품들이며, 목적을 상실하고 용도 폐기된 일상용품들이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디자인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되는 제품이다.

셋째, 리디자인 패션의 실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된 의식이 필요하며, 원자재 절감과 에너지 절감의 효과 및 생활환경의 오염 방지의 역할 등의 경제적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2. 패션산업에서의 리디자인 사례

미국의 에코이스트(Ecoist)의 경우 코카콜라, 디즈니, 마스, 프리토레이 등의 기업들로부터 필요 없거나 잘못 프린트된 폐기물을 공급받아 한

드백, 지갑, 팔찌 등 다양한 패션상품을 수작업으로 만든다. 사탕봉지, 캔뚜껑의 폴탭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해 고유의 브랜드 로고가 그대로 제품의 디자인이 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만든 핸드백은 2008년 독립 핸드백 디자이너 어워드에서 베스트 그린 핸드백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디자인 측면에서도 뛰어나서 카메론 디아즈, 패리스 힐튼 등의 할리웃 스타들이 고객이다. 솔더백은 패션으로 주목받은 영화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사만다가 메고 나오기도 했다. 스위스의 가방브랜드 프라이탁(Freitag)은 1993년부터 다 쓴 트럭 천막덮개인 타프를 주재료로 자동차 안전벨트, 폐자전거 튜브를 조합 사용하여 명품 백을 만들어 왔다. 메신저백을 기본으로 백팩, 스노보드 가방 등 다양한 상품군이 있으며, 이 회사에서 1년에 사용하는 재료는 방수천 200t, 자전거 튜브 7만 5000개, 차량용 안전벨트 2만 5000개에 달한다. 재활용할 타프가 부족할 정도라고 할 만큼 철저히 재활용을 하고 있다. 프라이탁의 가방은 비바람에 강한 타프가 재료로 만들어진 백이기에 역시 강한 내구성이 특징이고, 화려한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스위스의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대만의 방직기업들로 구성된 대만방직산업연맹은 페트병에서 추출한 섬유로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니폼을 만들었다. 월드컵 32개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개국 대표팀 선수들이 이 유니폼을 입었으며 그 중에 한국,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도 포함되었다. 이 유니폼을 제작하는 데에는 대만에서 회수된 1300만개의 페트병이 사용되었다. 페트병 섬유로 제작된 유니폼은

기존 옷감보다 13%가 가볍고 신축성도 10%가 더 있다. 최근 국내 친환경 기업인 오르그닷에서도 폐트병으로 만든 재활용 원사로 SK와 이 번스의 경기용 유니폼을 제작하여 선보였다. 이 기업은 핸드메이드 공법을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에 봉제 노동자와 그나마 일자리도 없던 봉제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실업자 구제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에코파티메아리는 기부를 돕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에 소속된 재활용디자인 사업부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된 헌 옷 들 중에 팔기 어려운 상태의 헌 옷을 모아서 리디자인 제품을 만들다 보니 소재가 충분하지 않아 제품의 수량이 적고 가방이나 소품이 주로 만들어진다. 에코파티메아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헌 옷을 이용해 인형을 만드는 ‘릴라씨 만들기’ 워크샵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리블랭크(Reblank)는 에코파티메아리보다 좀 더 패션에 비중을 둔 리디자인 회사로, 에코파티메아리의 창립멤버들이 독립해 세운 재활용 전문 패션기업이다. 이 회사에서는 헌 옷, 현수막, 폐가죽, 종이 등을 리디자인 하고 있다. 안 입는 옷을 맡기면 직접 스타일리시한 가방으로 리디자인 해주는 ‘클로젯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완성된 가방에는 제작 완성 날짜와 영문 이름이 새겨진 개인 레이블을 제공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작은 감동을 주는 뜻 깊은 리디자인 패션제품을 갖게 될 과 동시에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는 모든 옷을 재활용을 통한 리디자인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리디자인 전문 패션브랜드이다. 영국 런던의 러셀 세이지(Russel Sage)는 런던 중고숍에서 구입한 테이블보와 리넨으로 만들어진 침대보, 국기 등으로 옷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브랜드이다. 이 두 브랜드는 컬렉션을 통해 자사의 리디자인 패션을 선보이며 명성을 얻었으며 이 회사에서 출시하는 옷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리디자인 패션 제품의 특성으로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그 밖에 엘리 키시모토(Eley Kishimoto), 존 갈리아노(John Galiano),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의 브랜드에서 리디자인 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경우는 컬렉션을 통해 리디자인 패션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디자인 전문 브랜드 외에 대기업들의 활동의 경우는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벤트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인 제품의 생산과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 3. 친환경적 리디자인 패션의 디자인 유형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리디자인 패션과 관련된 각종 기사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췌한 사진들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리디자인 패션의 디자인 유형은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헌옷에서 칼라, 소매, 커프스, 포켓 등 사용가능한 부분만 원형대로 떼어내어 새롭게 재구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여러 가지 용도의 아이템이 모여서 하나의 전혀 다른 용도의 의류 아이템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림 2>는 재킷의 칼라와 소매를 포함한 가슴 윗부분을 통째로 잘라내어 튜브탑으로 용도 전환시킨 디자인이며, <그림 3>은 빈티지 천을 사용한 원피스에 재킷 한 쪽의 칼라와 앞 여밈 부분과 주머니에서 밑 단 부분까지만 떼어내어 디테일로 부착한 디자인이다. <그림 4> 또한 재킷의 왼쪽은 소매와 칼라를 그대로 살려내고 오른쪽은 재킷의 칼라와 소매부분을 포함한 윗부분을 제거하여 주머니를 포함한 밑단 부분만 디자인에 적용한 작품이다. <그림 5>는 원피스의 중간 부분과 스커트의 중간 이하의 사용가능한 부분을 잘라내어 하나의 스커트로 조합한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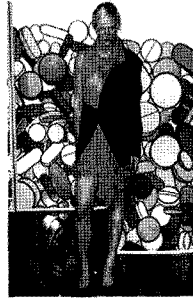
두 번째 유형은 헌옷 한 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부분을 떼어내어 이전과는 다른 용도의 패션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오래되어 낡고 패션성이 전혀 없는 가죽점퍼가 주머니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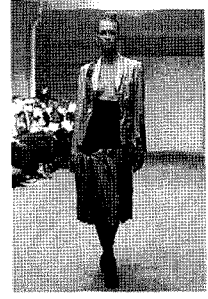
<그림 2>  
2002 S/S Russel Sage  
(출처: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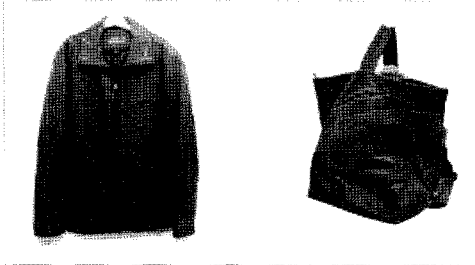
<그림 3>  
2002 S/S Russel Sage  
(출처: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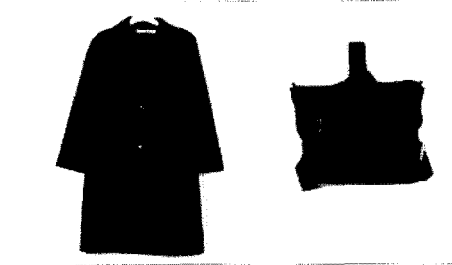
<그림 4>  
2005 F/W Christ  
(출처: www.elle.com)



<그림 5>  
2002 S/S Russel Sage  
(출처: www.style.com)



<그림 6> reblank  
(출처: www.mk.co.kr)



<그림 7> reblank  
(출처: www.m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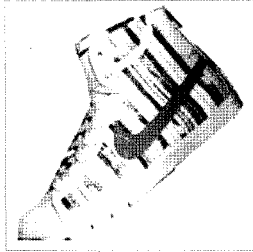
린 실용적인 가죽 가방으로(그림 6), 방수 천으로 만들어진 허름한 코트의 주머니 디테일을 그대로 살린 패셔너블한 가방으로 재구성되었다(그림 7). 바지를 원피스로 전환 시키는 방법으로 보통은 바지의 허리를 가슴으로 이동시켜서 원피스로 변형하는 방법이 보통이나 그림 8은 긴 바지를 위와 아래를 바꿔서 재구성하여 홀터넥 원피스로 전환 시킨 것으로, 바지의 허리부분과 앞, 뒤의 포켓이 그대로 스커트 단이 되어서 세상에 단 한 벌 밖에 없는 유니크한 스타일의 원피스가 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헌옷에서 사용가능한 부분만 조각천으로 떼어내어서 크기와 색상을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패치워크하는 기법으로 키치풍이나 그런지 룩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이키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를 위해 여러 개의 폐 운동화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을 잘라낸 작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키치적인 그런지 룩의 재활용 운동화를 제작하였고(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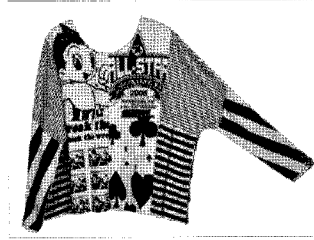
림 9), 리블랭크에서는 여러 가지 폐원단과 버려지는 티셔츠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을 잘라내어 이어붙인 티셔츠를 제품으로 내놓았다(그림 10). <그림 11>은 여러 가지의 조각천을 크기와 색상을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패치워크한 캐시미어 원피스이다. 쓸 수 있는 천조각의 상태에 따라 계획 되지 않은 우연함의 미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제품이다. 마르탱 마르지엘라 역시 여러 가지 색상의 조각 천을 이어 붙여 원피스를 제작하였는데 천 조각의 크기를 일정하게 잘라내고 규칙적으로 색채를 조합하여 이어붙이는 기법이 키치적 요소를 보여 준다(그림 12). <그림 13>도 키치적인 그런지 룩을 표현한 원피스로 러셀 세이지의 작품이다.



<그림 8>  
(출처: www.umagazine.de)



<그림 9>  
나이키 Recycled Shoes  
(출처: www.it.co.kr)



<그림 10>  
reblank Super Mixed T  
(출처: www.i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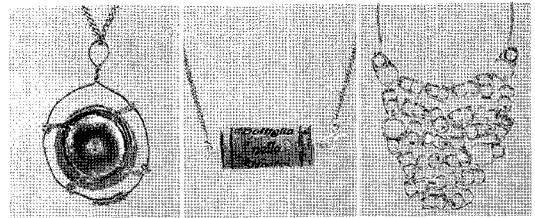
<그림 11>  
Patch Cashmere  
(출처: Experimental ECO-design)



<그림 12>  
Martin Margiela  
(출처: "Time magazine"  
nov22 2010)



<그림 13>  
2001 F/W Russel Sage  
(출처: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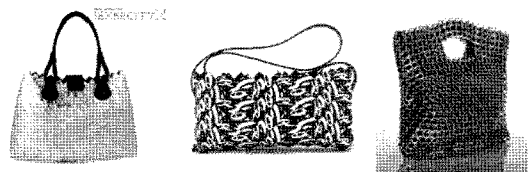
<그림 14> 2008 메종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카테일 목걸이  
(출처: www.blog.sub-studio.com)



<그림 15> <그림 16>  
(출처: www.ecoist.com)

네 번째 유형은 폐품화된 생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종이, 비닐, 알루미늄 캔, 금속, 페타이어, 방수천 등과 같은 이질적인 소재 사용한 것으로 핸드백을 포함한 가방류와 패션 액세서리가 있다.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패션 제품들은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패션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품들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패션 액세서리로는 마르텡 마르지엘라 메종에서 제작한 것으로 와인 병 뚜껑과 폴크, 소다수 캔의 폴뎀을 재료로 사용한 기발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목걸이를 들 수 있다(그림 14). 에코이스트에서는 캔 뚜껑 폴뎀을 이용하여 목걸이와 팔찌를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했다(그림 15, 16). <그림 17>은 코카콜라 라벨을 재료로 제작한 백과 캔 뚜껑 폴뎀으로 제작한 핸드백까지 에코이스트에서

출시한 핸드백 시리즈이다. 핸드백 시리즈로는 신문지로 만든 핸드백도 있으며(그림 18), 헌 레코드로 만든 팔찌를 볼 수 있다(그림 19).



<그림 17> 에코이스트 코카콜라 라벨 백, 에코이스트 캔뚜껑 손잡이 백  
(출처: www.it.co.kr)





<그림 18>  
(출처: www.ecois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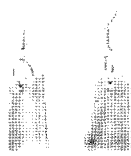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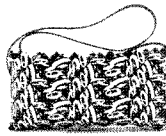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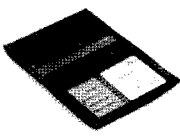







<그림 19>

그 외에 자전거와 트럭 바퀴의 속 튜브로 만든 남성용 벨트와 지갑, 파우치와 헌 레코드를 재료로 만든 팔찌 그리고 방수천 타폴린으로 제작한 백팩 등 다양한 패션 소품을 볼 수 있으며, 자전거 체인을 이용해 제작한 병따개, 사탕봉자

가 원재료인 식탁 매트와 벽지, 레코드를 이용한 벽시계 등의 리빙용품도 있다. <표 2>는 폐품화된 일상생활용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제품을 아이템별로 정리한 것이다.

다섯째 유형은 찢기, 구멍뚫기, 울퉁기, 프린지, 메쉬, 플라주, 애플리케, 레이어드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공예적인 패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000년 이후 계속되는 크라이스트 컬렉션에서는 오래된 중고의류를 레이어링하여 새련된 패션으로 탈바꿈시키거나(그림 20), 프린지와 메쉬 기법을 동원하였고(그림 22), 마르지엘라는 수많은 데님 조각을 울퉁기로 마무리하여(그림 21). 마치 90년대의 네오히피룩을 연상시키는 공예지향적인 패션으로 완성시킨 것을 볼

<표 2> 폐품화된 생활용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리디자인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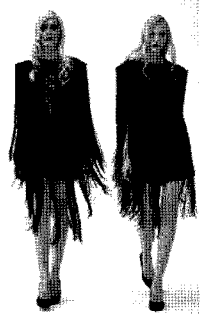
accessory				
neckless	bracelet		caring	belt
				
recycled t-shirts	Pulltab	candy wrappers	recycled glass	bicycle inner tube
bag				
handbag	bag	wallet	파우치	backpack
				
Coca-Cola soda labels	Plastic Bottle	bicycle inner tubes	truck inner tube	tarpaulin
living				
candy bowl	Place mats	wall clark	wall paper	bottle opener
				
waste-bound chip bags	candy wrappers	vintage 12" records	candy wrapper	bike ch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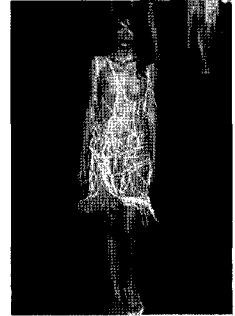
<그림 20>  
2011 S/S Christ  
(출처: www.style.com)



<그림 21>  
2009 S/S Martin Margiela  
(출처: www.hauteaddiction.com)



<그림 22>  
2011 F/W Christ  
(출처: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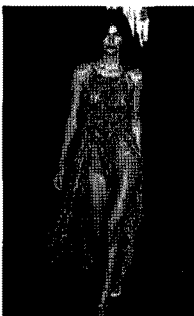
<그림 23>  
2005 S/S Christ  
(출처: www.elle.com)

수 있다. <그림 23>과 <그림 24>은 매쉬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나 스타일 면에서 원시적 형태와 현대적인 간결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크라이스트의 디자인이며, <그림 25>는 강렬한 색상의 조합을 보여주는 프린지 기법의 마르지엘라 원피스이다. 구멍뚫기와 찢기, 풀라주, 아플리케 또한 공예적 패션의 표현기법이다. 자연스럽게 오래된 듯한 형태와 색상을 통해 자원절약과 인간성의 회복을 모색하였던 70년대 펑크룩과 90년대의 빈티지룩의 표현기법이었으나 이것이 폐의류를 재료로 제작되는 리디자인 패션의 특성과 부합되어 완벽한 형태의 빈티지룩을 보여준다(그림 26, 27, 28).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리디자인 패션이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하나의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텍스타일, 헌옷, 일상용품 등 매우 다양한 폐기물로부터 얻어지는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국내외 리디자인 패션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리디자인 패션은 폐기물 감소 효과와 원자재 절감이라는 측면 외에도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패션제품이라는 희소성으로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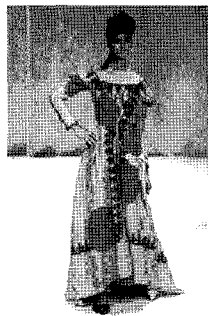
패션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국내외 리디자인 패션의 사례를 조사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이



<그림 24>  
2005 S/S Chris  
(출처: www.elle.com)



<그림 25> 2009 S/S  
Martin Margiela  
(출처: www.hauteaddiction.com)



<그림 26> 2002 S/S  
Russel Sage  
(출처: www.style.com)



<그림 27> 2009 S/S  
martin Margiella  
(출처: www.hauteaddiction.com)



<그림 28> 2000 F/W  
Russel Sage  
(출처: www.style.com)

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적 리디자인 패션의 개념과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리디자인 패션은 '인간과 환경을 지키다'는 새로운 가치기준에 따라 자원절약과 폐기물 감소를 실천하는 친환경적 개념의 패션디자인을 말한다.

둘째, 리디자인 패션의 소재로는 폐의류, 폐기된 텍스타일, 현수막, 폐가죽과 종이, 비닐, 알루미늄, 캔, 금속 등 일상의 폐품들이며, 목적을 상실하고 용도 폐기된 일상용품들이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디자인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되는 제품이다.

셋째, 리디자인 패션의 실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통된 의식이 필요하며, 원자재 절감과 에너지 절감의 효과 및 생활환경의 오염 방지의 역할 등의 경제적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환경적 리디자인 패션의 디자인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현옷에서 칼라, 소매, 커푸스, 포켓 등 사용가능한 부분만 원형대로 떼어내어 새롭게 재구성하여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여러 가지 용도의 아이템이 모여서 하나의 전혀 다른 용도의 의류 아이템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현옷 한 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부분을 떼어내어 이전과는 다른 용도의 패션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현옷에서 사용가능한 부분만 조각천으로 떼어내어서 크기와 색상을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 패치워크하는 기법으로 키치풍이나 그런지 룩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폐품화된 생활용품을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종이, 비닐, 알루미늄 캔, 금속, 페타이어, 방수천 등과 같은 이질적인 소재 사용한 것으로 핸드백을 포함한 가방류와 패션 액세서리가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찢기, 구멍뚫기, 울퉁기, 프린지, 메쉬, 플라주, 애플리케, 레이어드 등의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공예적인 패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의 분석 결과들에 따르면 폐기물에 기술과 디자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해 패션 명품

을 만들어내는 리디자인 패션이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관심 속에서 지속적인 디자인 및 생산이 가능하며 또한 수익모델로서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국내 패션산업에서 리디자인 분야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는 현대의 거대한 패션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재활용을 통한 리디자인 패션제품의 생산과 홍보, 판매점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업과 사회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낡고 쓸모없는 것과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생산단계에서부터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판매, 소비 등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 참 고 문 헌

- 김은진, 장남경. (2009). 폐원단을 이용한 친환경 패션디자인. *복식*, 17(2), 225-237.
- 김새봄, 이경희. (2010). 에코 패션디자인의 유형분석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6), 555-563.
- 김수현, 이재정. (2006).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기초조형학연구*, 7(3), 225-237.
- 김미금, 박희정, 간호섭. (2010). 현대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 경향 연구. *패션 비즈니스*, 14(4), 185-199.
- 남후남. (2010). 서스테이너블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53-68
- 류근중, 허은옥. (2006).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6(1), 57-78.
- 매일경제 & mk.co.kr 자료검색일 2011. 6. 4, 자료 출처 <http://www.google.co.kr>
- 박수민, 유영선. (2008). 2000년대 그린디자인에 나타난 로하스(Lohas)의 패션특성 분석. *한국복*

- 식학회지, 32(2), 307-318.
- 신혜영. (2011). 패션 산업의 업사이클링을 위한 리디자인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259-268.
- 손세란 김정희. (2004). 생태환경적 관점에 의한 의상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4(1), 23-34.
- 유홍식. (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 과 친환경 마케팅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 8(2), 7-18.
- 윤을요. (2010). 패션 브랜드의 그린 마케팅과 에코 디자인. *기초조형학연구*, 11(5), 327-337.
- 이성훈. (2011). 그린디자인의 현황과 한계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373-381.
- 이혜주, 이지연. (2006). 20세기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23, 37-50.
- 이연희, 이윤미, 하승연. (2004). 빅터 파파넬의 생태학적 미학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1(3), 185-197.
- 장남경, 김윤정, 주잔나. (2007). 패션산업에서의 친환경디자인.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6), 952-964.
- 천하봉. (2009). 통합적 친환경디자인과 지속가능 제품디자인의 개념모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0(5), 287-295.
- Burall, P. (1991). *Green Design*, London: The Design Council.
- V. Parnek. (1995). *인간을 위한 디자인*(현용순, 이은재 역). 서울: 미진사. 자료검색일 2011. 6. 2, 자료출처: [www.ecoist.com](http://www.ecoist.com)
- 2002-06 Russel Sage, Christ. 자료검색일 2011. 6. 2, 자료출처 [ready-to-wear-elle.com](http://ready-to-wear-elle.com)
- 2002-03 Martin Margiela collection. 자료검색일 2011. 6. 4, 자료출처 [www.style.com](http://www.style.com)
- 2008-07 maison-martin-margiela. 자료검색일 2011. 6. 2, 자료출처<http://blog.sub-studio.com>
- Martin Margiela "Time magazine" nov22. 2010, 자료검색일 2011. 6. 21, 자료출처 <http://www.uma-gazine.de/>
- 2009 SS Martin-Margiela. 자료검색일 2011. 6. 21, 자료출처 <http://www.hauteaddiction.com>